

셀 모임 순서지 (2025년 12월 첫째 주)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 나의 2025년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Worship - 찬양

☞ 나를 지으신 주님 / 주 안에 있는 나에게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무력감이 밀려올 때 (사무엘상 1:1-8)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오면 꿈을 꾸고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꿈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무력감이 밀려옵니다. 이런 자포자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한계를 넘어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짓눌리지 말고 현실의 어려움을 돌파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브님나는 자녀를 여려 명 낳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괴롭게 하고 조롱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고통을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빈틈을 주지 않고 공격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당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고통이 길다는 것은 반전이 크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에 초청하는 것이고, 여러분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시작하길 원하신다는 사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13년이란 세월을 노예, 즉 잊혀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요셉은 절망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일을 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함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잊혀진 소년이었습니다. 게다가 13-14년을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우리의 높임은 사람들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더 좋게 하십시오. 우리가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괴로운 과거를 되돌아보지 마십시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게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편이십니다.

2. 적용

- 최근에 겪은 어려운 일들이 있나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 우리는 무력감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Work – VIP 나누기 :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⑤ 교회와 열방을 위한 기도제목

- 셀과 부서가 부흥케 하소서.
- 12월 모든 행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소서.
- 담임목사님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주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원제: 내 이름 아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Tommy Walker

천관용 역

새찬송가 370장